

마스크 3배↑ 비결은...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노마진 유통

중기부 '마스크 공급 협약식' 개최
삼성전자, 中소 스마트공장 구축
화진산업, 마스크 생산성 2.5배 ↑
공영쇼핑에 '노마진' 100만장 판매



26일 서울 상암동 공영쇼핑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발적 상생 협약식'에서 (왼쪽부터)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하춘욱 씨엔투스성진 대표,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대표,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쇼핑

대기업의 전폭적 지원으로 마스크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2.5배 늘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쇼핑은 연결 역할에 충실하며 지원 효과 극대화

에 나섰다. 중소기업들의 제조혁신을 돕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만든 대기업 삼성전자와 중소기업 화진산업 이야기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량이 늘어난 화진산업은 마스크 100만장을 공영쇼핑을 통해 일반에게 '노마진'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대·중기간 상생을 통한 선순환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상암동 공영쇼핑에서 삼성전자, 화진산업, 도레이첨단소재, 씨엔투스성진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을 통한 마스크 공급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마스크필터를 긴급 생산, 공급해 화진산업이 마스크 완제품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다.

이외에 함께 자리한 씨엔투스성진은 국내 마스크 제조사 중 가장 먼저 노마진 판매방식에 참여, 수급 안정에 나선 '착한 기업'이다.

이날 자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김종호 스마트공장지

원센터장(사장),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대표, 하춘욱 씨엔투스성진 대표,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모은 착한 기업과 '자상한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이러한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이 모여 코로나19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600억 원을 출연하고, 중기부와 함께 총 1100억 원을 조성해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여기엔 200명의 제조 전문가들이 동원돼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게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2019년의 경우 지원한 기업수만 1077곳 등 지금까지 총 2500여 곳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도왔다.

특히 화진산업에는 마스크 생산량 향상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10여 명의 전문가를 집중 투입, 하루 평균 4만개 정도이던 생산량을 10만개로 늘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인 화진산업은 마스크 100만개를 조만간 공영쇼핑을 통해 일반에게 저렴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화진산업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상품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 당시 벤처부처 대통령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게다가 화진산업이 필터 전문 제조사인 도레이첨단소재로부터 필터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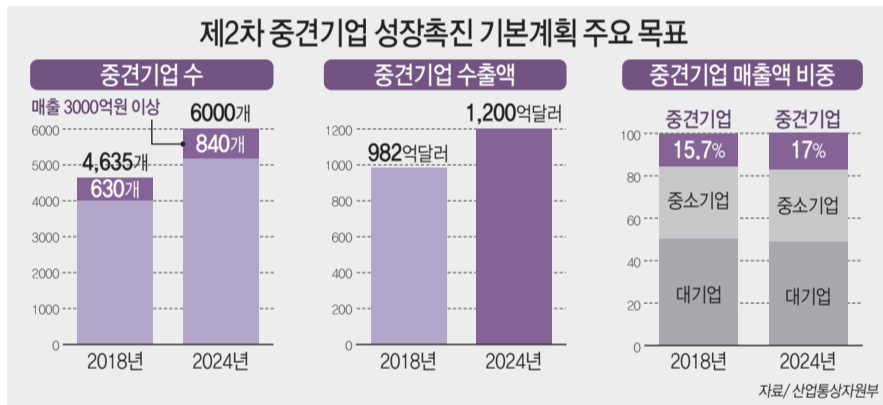
받게 된 것도 삼성전자가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후문이다.

최근 3개월간 매출과 일자리가 3배 정도 늘어난 화진산업은 올해 매출 100억원 돌파를 예고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공영쇼핑 최창희 대표는 "TV홈쇼핑 유일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맞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노마진 판매 ▲입고 즉시 매일 방송 진행 ▲전 연령층 구매를 위한 상담원 배치 ▲일시 쏠림방지를 위해 방송시간 미고지 ▲공공기관 책무를 위해 직원 및 관련자 구매 원천 불가의 '판매 5원칙'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인 씨엔투스성진은 국내 최초로 고성능 헤파필터 원천기술을 개발한 기업으로 공영쇼핑을 통해 마스크 노마진 판매에 나선 수범했다. 추가 생산하는 마스크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와 대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납품,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정부, 5년내 중견기업 6000곳으로 늘린다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출액 1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정부가 2024년까지 중견기업을 6000개까지 늘리고, 이들의 수출액을 1200억 달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50개와 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중견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견기업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중견기업법에 따라 5년에 한 차례씩 내놓는 것으로 2015년 6월 당시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전신)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 정부들어 중견기업 관련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첫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을 설정했다.

우선 중견기업이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혁신·도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을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지역 대표 중견기업은 100곳을 선정하고, 협력 중소기업 등과 상생협력·R&D·수출·특허 관련 지원을 연계해서 제공한다. 이 정책은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시장으로의 중견기업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를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과 220억 규모의 수출 컨설팅 등을 편성했다.

혁신 잠재력이 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전용 R&D로 성장을 촉진한다.

우수 연구자원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전문 연구원과 차세대 핵심기술 공동기획,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지능화 잠재력을 지닌 중견기업을 지원해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만든다.

AI·빅데이터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대학에서는 중견기업 취업형 석·박사 과정을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청년희망나눔에 취업생 벗어나 정규직”

SK하이닉스,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훈련후 협력사 취업 연계

태양이 뜨거운 지난해 7월 초,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청년들이 한 두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학은 여름방학에 들어가 캠퍼스는 비교적 한산한 데 모여든 남녀 청년들은 어느새 237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희망나눔' 2기 참가자들이다. 앞서 몇세 동안 진행한 면접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1차 관문을 통과한 이들이지만 7주간의 직무교육과 SK하이닉스 협력사 인턴십, 그리고 정규직까지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

"7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비즈니스 교육이었다. 수업때는 이 교육이 그렇게 유용할지 몰랐다. 사내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작성법, 문서 작성할 때 필요한 엑셀 다루는 법, PPT 작성법 등을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고 보니 많은 도움이 됐다. 수업명을 왜 '비즈니스 교육'이라고 붙였는지 알겠더라."

IT솔루션 서비스 회사 퓨처젠 ITS



SK하이닉스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교육에 앞서 설명을 듣고 있다. /SK하이닉스

사업부에서 일하는 박인환 사원의 말이다. 박씨는 지난해 진행한 SK하이닉스의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을 마치고 인턴 생활을 거쳐 정규직으로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청년희망나눔' 사업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협력기업 등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엔 교육 및 인턴 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호구지책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퓨처젠 ICS 사업부에서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이하늘씨도 지난해 SK하이닉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거쳐 협력사인 대덕전자에 취직한 장창규 씨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불안감일 것"이라며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이 그 불안감을 극복시켰고 자신감을 되찾게 했다. 특히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취업생들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기회가 되면 꼭 도전해 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성능 향상 '엘라스틱 스택 버전 7.6' 출시

엘라스틱, 지도 머신러닝 기능 탑재

엘라스틱은 검색·분석 엔진인 '엘라스틱 서치'의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보안 기능 및 지도 머신러닝 기능을 강화한 '엘라스틱 스택 버전 7.6'을 정

식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엘라스틱 스택 버전 7.6은 엘라스틱 서치의 검색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지도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엘라스틱 스택 버전 7.6은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버전에는 새로운 통합보안관리(SIEM) 탐색엔진을 도입해 스택 탐색을 자동화하고, 평균 진단 시간을 최소화해준다. 엘라스틱 서치를 핵심으로 하는 '엘라스틱 SIEM'은 이미 보안 조사 시간을 수 시간에서 수 분으로 줄여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